

‘원칙’과 ‘유연함’... 실용적 대처

靑, 경협사무소 남측 요원 철수 예의 주시... “대북관계 비관도 낙관도 안해”

청와대는 27일 북한이 개성공단 남측경협사무소 남측 요원의 철수를 요구한 것과 관련,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대남(對南) 기조를 드러낸 첫 사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랜 준비와 계산 끝에 나온 것인 만큼 북한의 의도 파악에도 주력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열린 제2차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당당하게 원칙을 갖고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이종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틀 속에서 대처해 나가되 불필요한 상황 악화는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은 철저한 원칙과 유연한 접근방식이라는 실용적 입장 하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새 정부의 대북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 ‘돌발 상황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그동안 수차 과거식의 ‘퍼주기’ 같은 것은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구체적인 조건과 성공 가능성 등을 따져가며, 상호주의에 입각해 북한과의 협력을 모색한다는 새



통일부 김호연 대변인이 27일 정부 중앙청사 브리핑실에서 북한이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시하며 개성공단 남측 교류협력사무소에 상주하고 있는 남측 요원 전원 철수를 요구한 것과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실용적 원칙을 북측에 전달해 온 것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보고 때 “국민의 뜻에 반하는 협상이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통일부의 모든 간부들은 이제까지 해오던 방식의 협상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 인권위원회에서 대북 인권 결

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도 과거와는 다른 대북 정책을 드러낸 단적인 예로 해석된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는 대북 경협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단절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수차 표명해 왔다. 강·온의 양면을 대북 협상자세로 내놓은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의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다리고 살펴왔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그동안 유심히 관찰해온 결과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놓고 비관도 낙관도 하지 않는다”면서 “대북 관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남뉴스

‘MB 대북정책’ 중대 기로

■경협사무소 남측 요원 철수 의미·파장 탐색전 끝낸 北, 첫 공식 경고 메시지 당분간 남북관계 경색 불가피 할 듯

‘통미봉남(通美封南)의 신호탄인가, 단순한 기싸움의 연장선인가.’

북한의 요구에 따라 개성공단 남측 교류협력사무소(남측경협사무소)에 상주하고 있는 남측 요원 11명 전원이 철수하게 될에 따라 그 의미와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핵문제 타결없는 개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김하중 통일장관의 최근 발언을 문재삼이 26일 남측경협사무소 남측 요원들을 3일 내에 전원 철수할 것을 요구했고 남측은 27일 새벽 11명을 철수시켰다.

◇‘경협사무소 직원철수는 南정부에 대한 불신’=경협사무소의 남측 인력 철수는 요구한 것은 남한 정부 당국에 대한 항의 내지 반

발로 볼 수 있다는 게 정부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북측은 2006년 우리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쌀과 비료 지원을 전면 유보한 것을 문제 삼아 그해 7월21일경 경협사무소에 상주하던 9명의 북측 인력 가운데 당국 인력 3명을 철수시킨 바 있다.

의명을 요구한 한 북한 문제 전문가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아닌 경협사무소 인원을 철수하도록 한 것은 남측 당국에 대한 북한의 불만 표시로 봐야 할 것”이라며 “민간 기업 차원의 남북교류를 중단하겠다는 메시지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北, 정치적 민감 시기 ‘메시지 호과 극대화’=북측이 남측이 다음달 9일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

감한 시기라는 점에서 메시지의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북측이 감안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대북 소식통은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대응 방향은 어느 정도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측의 이번 조치는 한미정상회담과 총선 전에 마치기로 남측 정부의 태도 변화를 노려보자는 포석으로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남북관계 ‘일시 단절’ 신호탄 되나=북한의 이 같은 도발적 조치에 대해 이명박 정부 또한 물러설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결과적으로 대남 압박카드 차원을 넘어 남북관계의 일시적 단절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태가 남북관계 냉각기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쪽에서는 북핵 상황에 따라 일각에서 우려하는 ‘통미봉남’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분석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연남뉴스

李 대통령 “100만원 넘는 운전면허 비용 줄여라”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1인당 비용이 확연히 줄어든다는 것까지 포함하면 100만원이 넘고 시간적,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손실이 크다”면서 “미국처럼 간편하게 시험을 보고 합격할 수 있도록 수험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없애야

한다”면서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경제단체들로부터 제안을 받아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택시·버스기사 친절교육과 분식집 업주 위생교육에 대해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골시장 시절 가뭄때니 서로 시간만 뺏고 효율적이지 않더라”면서 “요즘 분식집 업주는 위생적으로 하지 않으면 장사가 되지 않고, 버스·택시 기사도 근무여건만 좋아지면 친절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친절하게 돼 있는 만큼 시장경제원리에 맡겨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교육 폐지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법조문에 너무 어려운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 용어, 일본식 용어를 고쳐서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힘들어도 조금 방법을 써서, 전문가를 써서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남뉴스

민주 “개성공단 좌초 위기 유감”

통합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27일 북한이 김하중 통일부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개성공단 남측경협사무소 남측 요원들을 철수시킨 데 대해 “이명박 정부의 선부른 실용 논리가 남

북 교류협력이라는 민족적 대사를 그르치게 만들었다”며 “북한 당국 역시 감정적으로 처리한 것은 유감”이라며 남북한 당국을 함께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남한 기

술력과 자본, 북한 노동력의 결합으로 교류협력의 상징이자 경제협력의 육동자가 된 개성공단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하게 돼 매우 안타깝다”면서 “지난 성과가 축적된 개성공단 사

업을 정치논리를 동원해 하루 아침에 중단시키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하루 빨리 개성공단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6·15 공동선언과 2007년 2차 남북정상선언에서 후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연남뉴스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이영업(490308-1650911)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제3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 시점에 따른 제3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 제3권 또는 수증권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한정승인에서 제외함.
 시간변호사: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년 3월 27일
 공 고 인: 오윤자, 이재경
 한정승인수리일: 2008. 3. 21
 공 고 기 간: 2008. 3. 28 ~ 2008. 5. 27
 연 락 처: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교동로 344-1 나원빌라 101호
 이재경(010-5056-1874)

정 정 공 고
 본지 3월21일자 18면에 게재 된 광주지방법원 공시최고 공고 중 2008카공79 수표번호 비가를 바가로 정정공고 합니다.
 본지 3월 21일자 18면에 게재 된 광주지방법원 공시최고 공고 중 2008카공103 지급기일 5월 15일을 삽입 공고합니다.

40년 전통!! 합격률1위!! 전국수석 배출!!
본원출신 전국수석
공인중개사
 [총서생 156,000여명중] 본원출신 승은영님 평균 96.7
 4월1일 **국비무료** 광주고시학원 본원 227-8003
 개편서 2개월과정 ***정액수강***

(第17期) 決算公告
貸借對照表
 (2007년12월31日 現在) (單位: 원)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I. 유 동 자 산		I. 유 동 부 채	
1. 현금	5,368,869,221	1. 매 입 채	31,200,709,188
(1) 당 차 자 산	5,046,196,913	2. 매 입 채	14,461,085,428
2. 대 외 차 자 산	492,976,347	3. 매 입 채	12,372,000,000
3. 대 외 차 자 산	3,376,977,867	4. 매 입 채	1,995,587,901
4. 대 외 차 자 산	△28,433,203	5. 매 입 채	1,168,405,810
5. 대 외 차 자 산	△1,191,838,687	6. 매 입 채	91,417,960
6. 대 외 차 자 산	△11,918,386	7. 매 입 채	14,778,076
7. 대 외 차 자 산	16,194,106	8. 매 입 채	389,752,622
8. 대 외 차 자 산	8,552,495	9. 매 입 채	717,681,370
(2) 사 외 차 자 산	320,682,308	II. 비 유 동 부 채	
1. 사 외 차 자 산	291,495,237	1. 장 기 차 입 채	7,193,468,616
2. 사 외 차 자 산	29,187,071	2. 장 기 차 입 채	2,878,000,000
II. 비 유 동 자 산		3. 장 기 차 입 채	3,049,899,326
(1) 무 자 자 산	55,618,585,391	4. 장 기 차 입 채	△71,824,400
(2) 무 자 자 산	3,352,380,000	5. 장 기 차 입 채	1,397,423,690
(3) 무 자 자 산	496,000,000	부 채 총 계	38,394,177,84
(4) 무 자 자 산	2,867,380,000	I. 자 본	
(5) 무 자 자 산	51,827,322,863	1. 보 통 주 자 본	18,000,000,000
(6) 무 자 자 산	14,513,685,080	2. 특 별 주 자 본	18,000,000,000
(7) 무 자 자 산	46,498,366,852	II. 의 임 의	
(8) 무 자 자 산	△12,048,748,148	1. 차 이 이익	4,591,276,828
(9) 무 자 자 산	681,047,513	2. 차 이 이익	4,591,276,828
(10) 무 자 자 산	△464,549,622	(당기순이익)	
(11) 무 자 자 산	1,245,578,503	(당기순이익)	3,172,920,489
(12) 무 자 자 산	△11,499,630	자 본 총 계	22,591,276,828
(13) 무 자 자 산	2,306,387		
(14) 무 자 자 산	△2,303,887		
(15) 무 자 자 산	9,116,088,998		
(16) 무 자 자 산	△8,255,221,661		
(17) 무 자 자 산	2,424,012,626		
(18) 무 자 자 산	△1,965,400,647		
(19) 무 자 자 산	638,862,528		
(20) 무 자 자 산	638,862,528		
자 산 총 계	60,985,454,612	부 채 와 자 본 총 계	60,985,454,612

위와 같이 공시함.
 2008년 3월 28일
주식회사 송원
 대표이사 고경주
 감사의견: 위 대차대조표를 포함한 제17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삼덕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최홍배

(第2期) 決算公告
貸借對照表
 (2007년12월31日 現在) (單位: 원)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I. 유 동 자 산		I. 유 동 부 채	
1. 현금	2,504,286,336	1. 매 입 채	6,177,901,521
(1) 당 차 자 산	1,786,356,954	2. 매 입 채	225,346,734
2. 대 외 차 자 산	1,124,430,186	3. 매 입 채	286,267,804
3. 대 외 차 자 산	306,789,869	4. 매 입 채	9,392,659
4. 대 외 차 자 산	22,408,760	5. 매 입 채	5,460,000,000
5. 대 외 차 자 산	130,869,999	6. 매 입 채	186,964,344
6. 대 외 차 자 산	52,491,965	II. 비 유 동 부 채	
7. 대 외 차 자 산	148,763,786	1. 장 기 차 입 채	18,000,000,000
8. 대 외 차 자 산	524,440	2. 장 기 차 입 채	90,000,000
9. 대 외 차 자 산	717,927,394	3. 장 기 차 입 채	71,109,436
10. 대 외 차 자 산	207,147,264	4. 장 기 차 입 채	49,894,137
11. 대 외 차 자 산	240,307,454	5. 장 기 차 입 채	-1,489,800
12. 대 외 차 자 산	32,002,973	6. 장 기 차 입 채	110,578,811
13. 대 외 차 자 산	40,063,409	III. 자 본	
14. 대 외 차 자 산	236,469,693	1. 보 통 주 자 본	7,000,000,000
II. 비 유 동 자 산		2. 특 별 주 자 본	7,000,000,000
(1) 무 자 자 산	20,809,688,143	IV. 의 임 의	
(2) 무 자 자 산	1,000,000	1. 차 이 이익	0
(3) 무 자 자 산	1,000,000	2. 차 이 이익	0
(4) 무 자 자 산	20,730,725,733	V. 기 타	
(5) 무 자 자 산	1,084,053,722	1. 무 자 자 산	2,990,978,650
(6) 무 자 자 산	4,024,907,980	2. 무 자 자 산	2,990,978,650
(7) 무 자 자 산	△10,063,409	(당기순이익)	
(8) 무 자 자 산	155,732,047	(당기순이익)	2,990,978,650
(9) 무 자 자 산	-1,489,806	(당기순이익)	2,990,978,650
(10) 무 자 자 산	14,882,179,046	(당기순이익)	2,990,978,650
(11) 무 자 자 산	-93,962,082	(당기순이익)	2,990,978,650
(12) 무 자 자 산	182,062,170	(당기순이익)	2,990,978,650
(13) 무 자 자 산	-11,616,688	(당기순이익)	2,990,978,650
(14) 무 자 자 산	547,105,644	(당기순이익)	2,990,978,650
(15) 무 자 자 산	50,330,781	(당기순이익)	2,990,978,650
(16) 무 자 자 산	183,083,000	(당기순이익)	2,990,978,650
(17) 무 자 자 산	-31,225,382	(당기순이익)	2,990,978,650
(18) 무 자 자 산	0	(당기순이익)	2,990,978,650
(19) 무 자 자 산	154,250,000	(당기순이익)	2,990,978,650
(20) 무 자 자 산	-9,804,372	(당기순이익)	2,990,978,650
(21) 무 자 자 산	42,930,410	(당기순이익)	2,990,978,650
(22) 무 자 자 산	42,930,410	(당기순이익)	2,990,978,650
(23) 무 자 자 산	55,032,000	(당기순이익)	2,990,978,650
(24) 무 자 자 산	27,000,000	(당기순이익)	2,990,978,650
(25) 무 자 자 산	8,082,000	(당기순이익)	2,990,978,650
자 산 총 계	23,313,974,481	부 채 와 자 본 총 계	23,313,974,481

위와 같이 공시함.
 2008년 3월 28일
주식회사 에스제이금속
 대표이사 송형석·주영진
 감사의견: 위 대차대조표를 포함한 제2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또는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양승우

(제22기) 결산공고
대 차 대 조 표
 (2007년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I. 유 동 자 산		I. 유 동 부 채	
1. 현금	69,954,428,451	1. 매 입 채	50,628,235,094
(1) 당 차 자 산	24,418,477,277	2. 매 입 채	14,969,962,714
2. 대 외 차 자 산	990,942,129	3. 매 입 채	8,000,000,000
3. 대 외 차 자 산	572,851,232	4. 매 입 채	3,023,310
4. 대 외 차 자 산	1,273,830,000	5. 매 입 채	8,863,280,674
5. 대 외 차 자 산	19,475,000	6. 매 입 채	4,070,645,549
6. 대 외 차 자 산	2,622,952,285	7. 매 입 채	2,935,028,446
7. 대 외 차 자 산	855,620	8. 매 입 채	2,605,865,401
8. 대 외 차 자 산	645,714,697	9. 매 입 채	11,848,489,000
9. 대 외 차 자 산	14,178,237,477	II. 비 유 동 부 채	
10. 대 외 차 자 산	△75,000,000	1. 장 기 차 입 채	216,628,848,554
11. 대 외 차 자 산	4,171,286,415	2. 장 기 차 입 채	10,550,000,000
12. 대 외 차 자 산	11,040,174	3. 장 기 차 입 채	20,317,000,000
13. 대 외 차 자 산	6,292,248	4. 장 기 차 입 채	14,707,280,000
14. 대 외 차 자 산	45,535,951,174	5. 장 기 차 입 채	8,761,283,805
15. 대 외 차 자 산	18,651,357,603	6. 장 기 차 입 채	2,219,078,000
16. 대 외 차 자 산	184,642,841	7. 장 기 차 입 채	△8,888,300
17. 대 외 차 자 산	17,432,796,934	8. 장 기 차 입 채	△871,352,750
18. 대 외 차 자 산	9,158,411,796	9. 장 기 차 입 채	91,934,887,604
19. 대 외 차 자 산	108,740,000	10. 장 기 차 입 채	88,517,811,195
II. 비 유 동 자 산		부 채 총 계	267,253,083,648
(1) 무 자 자 산	207,807,201,522	I. 자 본	
(2) 무 자 자 산	33,909,838,778	1. 보 통 주 자 본	5,908,820,000
(3) 무 자 자 산	58,009,089,853	2. 특 별 주 자 본	5,908,820,000
(4) 무 자 자 산	17,773,215,761	II. 의 임 의	
(5) 무 자 자 산	76,174,841,775	1. 차 이 이익	2,116,559
(6) 무 자 자 산	△8,059,784,645	2. 차 이 이익	2,078,367
III. 비 유 동 자 산		3. 차 이 이익	36,192
(1) 무 자 자 산	26,210,113,897	III. 의 임 의	
(2) 무 자 자 산	22,450,960,609	1. 차 이 이익	30,807,723,663
(3) 무 자 자 산	2,067,526,930	2. 차 이 이익	4,500,276,400
(4) 무 자 자 산	2,456,817,520	3. 차 이 이익	1,088,394,440
(5) 무 자 자 산	16,883,661,159	4. 차 이 이익	25,219,052,823
(6) 무 자 자 산	882,965,000	(당기순이익)	
(7) 무 자 자 산	360,000,000	(당기순이익)	2,116,559
(8) 무 자 자 산	3,506,432,878	(당기순이익)	2,078,367
(9) 무 자 자 산	2,998,480,000	(당기순이익)	